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3, 2022 Vol. 800

엘에이씨티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일터 선교사 세운다”

엘에이씨티교회(담임 씨니 김 목사)가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았다.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터 사역자를 양성해 왔던 씨티교회에게 지난 2021년은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엘에이씨티교회의 선교목사이자 씨니 김 목사의 남편 고 다니엘 김 목사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목회 그리고 남편의 투병은 씨니 목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

주위에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목회에 전념하며 남편 간호에 헌신을 바친 씨니 목사에게 “목회를 그만 포기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병간호와 팬데믹 가운데 목회로 지친 김 목사를 위한 위로였다.

그러나 씨니 김 목사는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의 결단을 올려 드렸다. 씨니 김 목사는 “사방으로 우



2022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한 엘에이씨티교회 ©기독일보

겨 씌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며 “주께서 씨티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매주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기에 지칠 수 없고 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선다”

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다. 마지막 날 새벽강단에 선 씨니 김 목사는 예레미야 33장 1-3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감사의 표현과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

라고 말하며 늘 감사의 자리로 나가자고 말씀의 문을 열었다. 그는 “감사의 자리에서 나가서 내가 변화될 가장 강력한 가능성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며 “기도는 현재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해주며,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감옥의 자리에서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을 여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김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주시기를 믿고 2022년 한해 기도의 삶으로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일터사역자인 그는 현직 부동산 브로커 대표이기도 하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일터로 향한다. 그는 엘에이씨티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회가 되어, 일터에서 일터교회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나라를 위한 선교를 확장해 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선의 의무화는 유지

미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기업인들에게는 막고,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발표한 2건의 판결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주 의 vs 산업안전보건청(Ohio et al. vs. Indus-

tri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한 조치를 막는 임시적 주중 발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전보건청은 과거 이러한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으나 직업안전보건청이 공포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며 “행정부

美 연방대법원,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

있다”고 밝혔다. 또 “내무부 장관은 8,4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사비를 들여 의료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오 소토마요르 판사 등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 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동자 8,400만 명이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 우정국 직원, 의회 의원, 100명 미만 사업체, 원칙적으로 타당한 종교적·의학적이 사유가 있는 개인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의무사항들이 연방정부의 지나친 접근을 보여주는 예이며,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종교적 반대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각 주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마다 엇갈린 결과를 낳고 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교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쁜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럼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뱅크럼시

뱅크럼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어는 분야 보다는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 수 없는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새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진건호 목사, 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이현옥 목사 위임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는 지난 16일, 나성제일교회(담임 김성지 목사)에서 회장 위임 및 수석부회장·이사장·부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5대 회장으로 진건호 목사가 지난해에 이어 연임했고, 수석부회장에 노정해 목사, 이사장에 서사라 목사가 취임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12대 회장으로는 이현옥 목사가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연임했고, 수석부회장에 김혜정 권사 부이사장에 글로리아 강 목사가 취임했다.

영상으로 위임 인사를 전한 진건호 목사는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회장 위임 인사를 전한 이현옥 목사는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남가주 연합 기관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 해도 주님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수석부회장·이사장·부이사장 취임식 ©기독교일보

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회 증경회장), 이호우 목사(OC교회 증경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류당열 목사(엘에이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총회 대표회장)가 권면했다.

강신권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 여성목사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가주목사회의 희망을 보게 된다”며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진 남가주 교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호우 목사는 “두 목사회

의 한 해 동안의 사역과 연합 운동을 통해 남가주 교회가 화목하는데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당열 목사는 “남가주 교회의 발전을 향해,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는 남가주한인목사회와 여성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현 목사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남가주한인목사회와 여성목사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동안의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주재임 목사로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박웅기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엘리아 김 목사(RPCA 총회 총회장)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나”(롬 14: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한기총미주총회 상임고문 이태환 목사가 했다.

엘리아 김 목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소망”이라며 “목회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자”고 설교했다.

김동욱 기자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제3대 담임 목사 최종 결정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청빙위원회는 시애틀 형제교회 국윤권 목사(45)를 충현선교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결정했다. 충현선교회는 지난 19일 최종 후보로 추천된 국윤권 목사에게 대한 공동의회를 열고 유효투표수의 2/3가 넘는 81.9%의 찬성으로 국윤권 목사를 3대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했다.

국윤권 목사는 오는 1월까지 시애틀 형제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충현선교교회에서 민종기 목사와 동사무사로 사역하게 될 예정이다.

국윤권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겠다”며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5세인 국윤권 목사는 14살에 엘에이 동부 지역으로 이민 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화학을 전공(B.A.)하고,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부목사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애틀 형제교회 부목사로 사역해 왔다.

민종기 목사는 “국윤권 목사는 15세로 이민 1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이민 1세대들의 눈물과 헌신을 잘 이해하며 존경하는 동시에 1.5세와 2세들의 언어, 문화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목회자”라며 “목회적 영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좋은 목자의 성품과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민 목사는 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공동체 사역과 선교 사역, 가정 사역, 중보기도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경험해 충현

선교교회가 한 단계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동성을 갖춘 목회자”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국윤권 목사님은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로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초점을 맞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부족한 없는 목회 비전과 자질을 겸비한 목회자”라고 호평했다.

권 목사는 이어 “국윤권 목사님은 공동체 사역을 비롯해서 가정 사역, 중보기도 사역, 선교 사역 등 형제교회의 여러 사역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교회에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변화, 부흥을 함께 체험하며 섬겨왔다”며 “국 목사님께서 1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고 영이 권과 자녀세대를 일으켜 세워 충현선교교회가 지역 커뮤니티와 열방을 품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교단 분리... 평신도가 알아야 할 교단 장정은?

2월 5일(토), 12일(토) KUMC 온라인 평신도 리더십 세미나 개최

미주 전역 한인연합감리교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는 2월5일(토)과 12일(토),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리더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월 5일에 진행될 첫 번째 강의는 “평신도 리더가 알아야 할 연합감리교회 장정”이란 주제로, 류계환 목사(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선교총무)가, 2월 12일, 두 번째 강의는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재정운영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김동윤 장로(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현직 공인 회계사(CPA)가 강사로 나선다.

전국평신도연합회 회장 안성주 장로(LA 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가 교단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단의 법인 장정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던 한인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과정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평신도 리더훈련이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남부 플로리다 KUMC)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평신도 리더 훈련은 지난 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청지기 세미나를 이어,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개체교회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대한 훈련과 투명하고 균형 있는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평신도 리더십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한교총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기간 40일 <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예배> 모이세 특별새벽 연합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문의 김일영 목사 856-424-9686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정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2대 신용 회장, 40대 윤우경 이사장 취임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22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42대 회장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에는 신용 수석부회장이, 이사장에는 윤우경 이사장이 연임했다.

신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연합회 이사, 자문위원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인사하고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연합회를 굳건히 세워 온 민김 회장을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42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연합회, 교회와 협력하고 교계와 연합하는 연합회, 건강한 평신도 신앙을 추구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연합회의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윤우경 이사장은 “4년째 연이은 이사장으로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지만 함께 해

주신 분들의 기대와 기도에 힘입어 다시 한 걸음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다짐과 비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의 연합과 복음전파에 힘을 모으며 선한 영향력을 위해 전진하는 연합회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임하는 41대 민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함께해준 연합회 이사, 자문위원, 임원,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리며, 오렌지카운티 지역단체장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행복했노라”고 3년간 맡아 온 회장의 소감을 말했다.

이날 취임식 1부 감사예배는 연합회 부이사장 한창훈 장로의 사회로 연합회 이사 전홍 장로의 기도에서 이어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냉수같은 하나님의 일꾼(잠 25: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에서 구봉주 목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 드리는 연합회,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는 연합회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

2부 취임식은 연합회 윤강혁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42대 회장 40대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합회 소개를 맡은 신영세 장로(연합회 부이사장)는 “42년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자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그간의 연합회 역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며 회상에 젖기도 했다.

이날 축사는 OC교협 부회장 박재만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OC장로협의 회장 김생수 장로가 전했고, 연방하원의원 영김과 미셸 박스틸, OC감찰총장 Todd Spitzer, 전주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신용 회장, 윤우경 이사장과 함께 남가주에서 오랫동안 교계 활동을 했던 전주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미주 소식에 기쁨이 몽클하다”며 “방송인 출신 신용 회장과 언론인 출신 윤우경 이사장의 콤비가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취임식은 크리스천헤럴드 선교회 대표 이성우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한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는 올 해 첫 조찬기도회를 2월 5일(토) 아침 7:30에 에반겔리아 대학교 채플실(2660 W Woodland Dr # 200, Anaheim, CA 92801)에서 갖는다. 설교는 OC 교협 이사장 신원규 목사가 전하며, 연합회 원로적인 자문위원, 이사들이 신임 임원 및 회원들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및 인근지역의 평신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562-399-2022

산타페 상담소 재오픈, 1:1 대면상담 및 온라인 상담 개시



산타페 상담소 재개원 감사예배 기념촬영

산타페 상담소 (소장 김경준 박사) 재오픈 감사예배 및 상담 세미나가 지난 21일, 상담소가 위치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본관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예배는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가 창세기 45장 21-28절을 본문으로 “아픔 가

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요셉과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치유되어 갔는지에 대해 설교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가족성장 상담센터 소장인 오광복 목사가 줌으로 대표기도를 했으며, 월드 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디렉터인 송경화 교수가 축사를 전했다. 또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채플린 훈련 과정에 있는 송조이 박사가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45명이 참석해 재개원을 축하했다.

감사예배 후에는 백석대학교 전형준 교수가 “팬데믹 시대의 분노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전 교수는 팬데믹 시대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

을 진단한 후, 임상심리학적 분노관리 및 성경적 상담에서 분노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했다.

김경준 박사는 팬데믹 시대의 부모 스트레스 관리에 관해 세미나를 인도했다. 김 박사는 팬데믹 기간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소개하며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기독교 상담을 제공하는 산타페 상담소는 홈페이지(santafec.org)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산타페 상담소로 검색) 1:1 채팅을 통해 대면상담 및 온라인 상담 문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수교회), 주성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에스이대), 송경원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중원교회), 신정민목사(동원교회), 유근기목사(새생명교회),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책의 책은 100여 개교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기독교 동역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2022

초대합니다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 동역할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모십니다.

왜 머슴교회 세미나인가?
강사: 송영선 목사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

제자훈련이란 컨셉이 심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받고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어떻게 “제자훈련”을 개혁 할 수 있는가?
✓ 건강한 교회의 모형은 무엇인가? ✓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10가지 가치 위에 세운 빌립보교회
‘머슴교회’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빌립보교회(Church of Philippi)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인 복음은 언제나 새 부대인 가치관과 문화에 담아야 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회 문화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발견한 10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직 예수
- 머슴의 도
- 한 영혼의 귀중함
- 목양 우선
- 과정 중심
- 평신도 사역
- 두 날개의 교회
-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 안팎이 똑같게
- 그럴 수도 있지

머슴교회 세미나 신청자격

- 머슴교회 열가지 가치관과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리더
- 제자훈련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의 방법으로 삼는 리더
- 평신도 동역자를 양육과 재생산의 목양자로 세우기 원하는 리더
- 부교역자나 평신도 리더는 담임목사와 함께 등록 가능 (인원 제한 있음)

등록비: \$150
등록 마감: 2월 21일까지
등록 제출 : mansain.org

장소 & 문의 (순전한 교회, 이진환 목사)
2101 W. Crescent Ave. #K Ahaheim, CA 92801
714-469-2220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0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선교편지”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돌 지난 셋째 아들만 데리고 우간다 개척 선교를 위해 떠났던 김 선교사 내외분을 기억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 끝에 선교지 정착에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신 선교사의 새해 선교 편지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1. 선교사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부모의 부르심에 따라 어릴 때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탄다는 말에 속아(?) 따라온 아이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막내아들 준형(9학년)이가 있습니다. 2살 때 겨우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한두 마디 말을 배워서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왔습니다. 세월이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2. 시골이라 국제 학교가 없는 관계로 근처에 집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 하여 큰 볼일을 보지 못해 끔찍했던 순간들, 배가 아프다고 하여 원인 분석을 해보니 세수대야에 부어 놓은 손 씻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니... 아프리카 친구들이 모래를 먹는다고 같이 밥 대신 먹자고 모래를 함없이 먹고 있었던 아들 준형. 시장에 가면 동네 아이들 100여 명씩 뒤따라 오며 부르짖는 말 “무중구 무중구(외국인을 지칭하는 말)” 이 말이 듣기 싫다고 “난 사무엘이야!” 자기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귀를 막던 막내동생이.

3. 시골 현지 학교에서 3학년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였지만, 수업 내용의 질과 모든 학교 시스템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이웃 나라 케냐의 선교사 기숙학교 Rift Valley Academic에 일찍 4학년부터 보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울면서 같이 기숙사에 누워 있던 모든 학생을 울게 만들었던 추억 만들기 전문가가 된 준형. “오늘 밤에 기숙사 방을 나가서 걸어 우간다로 갈 수 없을까? 근데 문 열면 쇠소리가 너무 크게 나겠지?” 하면서 걸어 나와 학교 탈출하는 것을 포기한 아들.

4.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은 “아빠, 나 케냐 이 학교 싫어. 나 우간다로 돌아갈 거야” 한바탕의 난리를 통해 학교에서의 부모 호출.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부모의 마음. “주님! 어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대화를 통해 길을 열어 주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들.

5. 그런 순간에 코비드19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영상 수업으로 진행되었죠. 이제 다시 학교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학교 갈래요. 보내 주세요” 이제 이 아들이 9학년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학교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1월 3일 2학기 Term을 시작해야 하는데 케냐의 코비드 상황이 급히 악화되는 바람에 2주간 연기, 다시 또 2주간 연기 드디어 오늘 코비드 검사가 negative로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6. 엄마는 학교 가는 아들의 필요한 도구들, 학용품, 간식, 입을 옷 등을 챙긴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공부해 대강해라. 하나님과 친해라. 친구, 이웃하고 많이 사랑해라. 2달 후 다시 방학하면 보자.” 이제는 웃으면서 공항 이별을 합니다. 그동안은 보내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어리고 다 설명하지 못해도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금 웃어봅니다.

선교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내고 늘 기도해 주시는 파송교회, 후원 교회와 동역자들, 중보기도자들, 사랑하는 신학교 동기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큰 복 위에 복을 넘치도록 주시길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우간다에서 김세현과 노미정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모세를 통해서 보는 영적 리더십(3)

19)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출19:7) :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며 그것을 백성에게 바르게 전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지시를 따르며 전하는 사람이다.

20) 성결한 사람이다 (출19:14) : 백성과 함께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모세는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 성결하고 또 백성을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다.

21)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출31:18, 32:15) :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주의 말씀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 백성을 인도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22)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다 (32장) :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신으로 삼아 경배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대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

23)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 (출32:31-32) : 자기의 죄가 아니라도 책임감을 느낀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상을 섬긴 자기들의 가족까지 처단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 모세는 백성



박광철 목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지도자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을 감당한다.

24) 꺾대를 향한다 (출33:1) :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다. 백성이 비록 광야에서 이리 저리 방황하지만 모세가 바라보는 꺾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다. 목표 의식이 희미한 지도자는 추종자들과 더불어 방향하게 되지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진 지도자는 그의 초점이 변하지 않는다.

25)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한다 (출33:11). 친구가 얼굴을 대하고 말하듯이 늘 대화했다.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이다. 모세는 자기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같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26)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출34:29) : 그것을 백성도 보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의 리더십은 더욱 힘을 낸다.

27)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36장) : 성막을 완벽하게 세운 것처럼 지도자는 영적인 교회를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원했던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었다 (출 5:1).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광야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동식 성전 곧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다시 성막을 거둬들여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그것을 40 년간 지속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또 강건하게 한다.

28) 충성스런 사람이다. 그의 충성은 세상의 누구보다 깊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 3:5).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유능함보다는 충성스러움을 기대하신다 (고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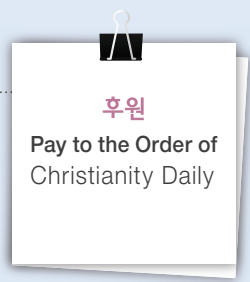
29)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만을 따랐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40:35-36).

30)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을 완수한다 (출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충성스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나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지도력은 그것을 타고 난 어느 특정한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부 고

기쁜우리교회 교회장

기쁜우리교회 시무장로이신 양승현 장로(56세)께서 2022년 1월 10일 오후 12시 34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하오며 천국 환송 예배를 기쁜우리교회 교회장으로 아래와 같이 거행 합니다.

❁ 천국 환송 예배 일정

일 시: 2022년 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천국 환송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집례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연락처 (818) 662 - 0400

❁ 유가족

부인: 양성심 (Sarah Yang)
장남: 양조셉 (Joseph Yang)
장녀: 양한나 (Hannah Yang)

기쁜우리교회 교회장 장례위원 일동

김경진 이재학 원동석 민홍식 이효수 송의용 전영환 김원국 강성원 서지철

유튜브 채널 검색 : 기쁜우리교회
* 개별 부고는 생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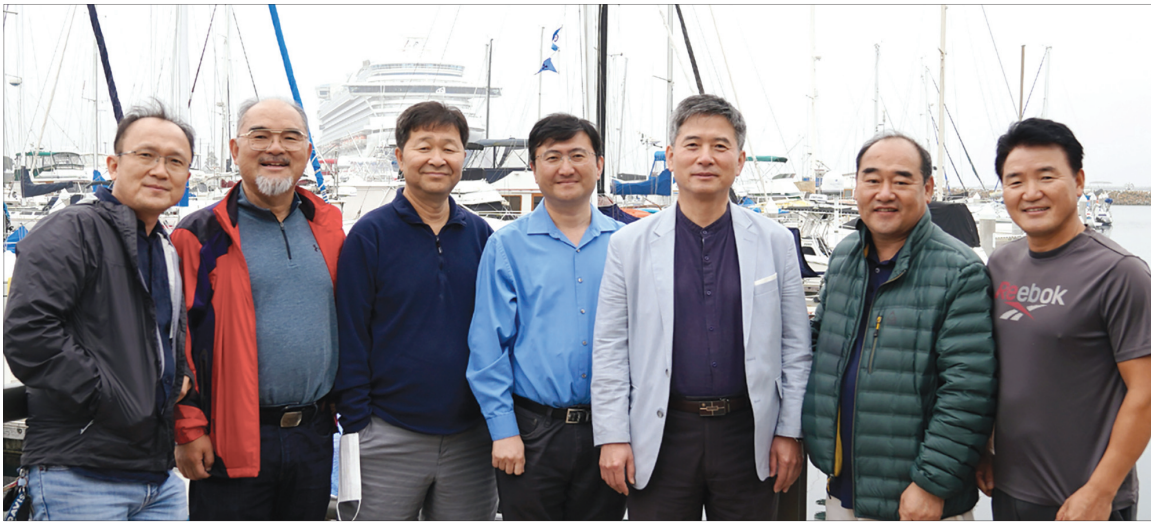
미주장신대 100만 달러 릴리 그랜트, '다문화 목회 지도자' 양성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릴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약 100만달러(\$999,198)에 달하는 그랜트를 통해 다문화 목회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미주장신대는 한어권과 영어권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 낼 다문화 목회 리더십 양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약 20만 달러의 예산을 목회학 석사 과정 개발과 이중 언어 교육 등에 투자하게 된다.

앞서 종교, 교육 및 공동체 개발 분야를 지원하는 릴리 재단(Lilly Foundation)은 북미 신학 교육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북미 신학대학원협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공조하고 그랜트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목회 리더십을 개발하고 신학교육의 위기는 물론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0여 ATS 회원학교에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주장신대는 미주 지역 한인교회 내 한어권과 영어권의 갈등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목회 리더십 고양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좌부터 우정훈 원격교육처장, 임운택 박사원장, 김루빈 교무처장, 김경준 상담심리학 디렉터, 이상명 총장, 이명철 기획 및 대외협력처장, 신춘식 선교학석사 디렉터

한인교회 내 한어권과 영어권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상호간 이해와 존중 없는 갈등 가운데, 빈번한 영어권 사역자 교체는 자녀 세대에 큰 아픔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한인교회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세대간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미주장신대는 제안서에서 1세 사역자들과 2세 사역자들이 신학교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학 교육을 받게 함으로

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갖게 하고, 졸업 후 이민교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 서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차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했다.

나아가 두 그룹이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함양하도록 신학교육을 디자인했다. 세대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실행하는 파트너로 서로를 인식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이민교회 안의 1세와 2세, KM 과 EM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인 이민

교회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미주장신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가을학기부터 M.Div. Concentration in Professional Chaplaincy 를 개설해 1세는 물론 1.5 세와 2 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세 중심의 신학교육에서 1.5 세와 2 세가 함께 신학 교육을 받는 구조로 재편해 이에 걸맞은 실제적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이상명 총장은 "세대 간 통합

신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을 통해 1.5세와 2세를 매년 10명씩 모집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6년에는 본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50명의 1.5세와 2세 예비 목회자(사역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등록해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장은 "1세들에게 영어 교육과 미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2세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서로를 향한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세대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구조를 없애고 언어 차와 문화 차를 넘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고양하는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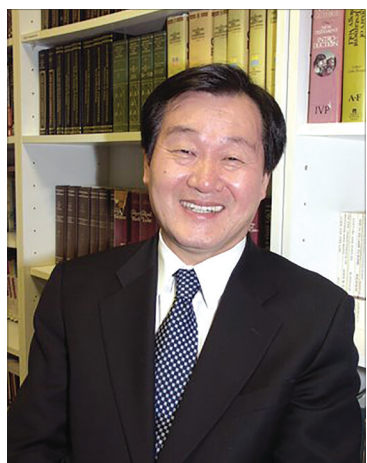
또한 목회실습을 통한 실제적 교육을 위해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 산하 교회와 협력해 1세 신학생들이 2세 목회를 배우고, 2세 신학생들에게는 1세 목회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목회 철학과 방식, 가치관을 이해하고 목회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목회 지도자로 양성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건강한 이민교회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3월 7일(월)부터 9(수)까지 순전교회(담임 이진환 목사 2101 W. Crescent Ave. #K Ahaheim, CA 92801)에서 개최된다.

머슴교회 세미나는 메릴랜드 빌립보교회 송영선 원로목사가 강사로 나서 머슴교회의 10가지 가치와 제자훈련,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 구조 등을 소개하며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송영선 목사 (국제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목사)

머슴교회는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의 본질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평신도 동역자를 양육과 재생산의 목양자로 일으켜 세우는 데 핵심이 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서는 송영선목사는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 우선 △과정 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같게 △그릴 수도 있지 등 메릴랜드 빌립보교회

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인도하게 된다.

송 목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민하는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을 초청한다"며 "머슴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자료들을 나누며 오직 예수와 한 영혼의 소중함, 목양의 과정과 평신도 사역을 가감 없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든든한 동역자로 또한 목양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목양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하는 사역이다.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했다.

송 목사는 이어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교회와 목회 본질을 고민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민 목회의 동행자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간 사고합성시 원형유지보장 완벽보장 보장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2020년 다년 뉴스타
케를리
ONE #168888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판결, 무슨 내용 담겼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에서는 “김하나에게 피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단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은퇴부터 김하나 목사 청빙, 교단 헌법 규정과 총회재판국의 1차 판결 및 재심, 재재심 청구와 총회 수습안 의결, 김하나 목사의 2021년 부임까지를 정리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원고가 2019년 이전부터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교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이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김하나 목사 지지 교인들과 대립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예배 참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

위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대표권을 갖는다”며 “따라서 김하나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총회 수습안은 소송을 금지했는데, 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그러나 원고는 수습안 의결에 참여한 당사자도 아니고, 일체의 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이 교단 재판 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항변에 관해선 “교단 내부적으로 징계나 종교활동 차원에서 불이익



(오른쪽부터) 지난 2017년 11월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식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규정에 위반해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①호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판결했던 총회 재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습안 의결에 추후 김하나 목사 청빙이 있는 경우 기존 서울동남노회 청빙승인결의가 모든 절차를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러나 총회 스스로도 수습안 의결이 무효인 행위를 추진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재심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하여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무효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 총회 수습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했다가 2021년 1월 1일자로 김하나를 재차 청빙하는 것만으로,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새로운 청빙절차로 보더라도, 여전히 재심 판결 취지대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복음주의 목회자·신학자들이 꼽은 대통령 선택 기준 4가지



기도하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지도자들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대통령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할 것을 경계하면서도,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는 14일 오전 7시 신촌생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에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1월 월례발표회를 열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한국복음주

의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국사회 최고의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충실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복협 “정치에 휩쓸리진 않되, 권리 적극 행사해야”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 우방과 연대하여 적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자 선택의 기준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첫째, 우리는 모름지기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

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지도자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우리는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믿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성경적 가치에 반한다고 믿는다. 이런 생각을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셋째, 우리는 정부가 종교계를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

이므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 여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기독교가 미친 기여를 인정하고 이것을 역사 교육과 문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행 역사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는데 마땅히 학교 교육은 이것을 시정하여 역사를 공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강화와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한 복음 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와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바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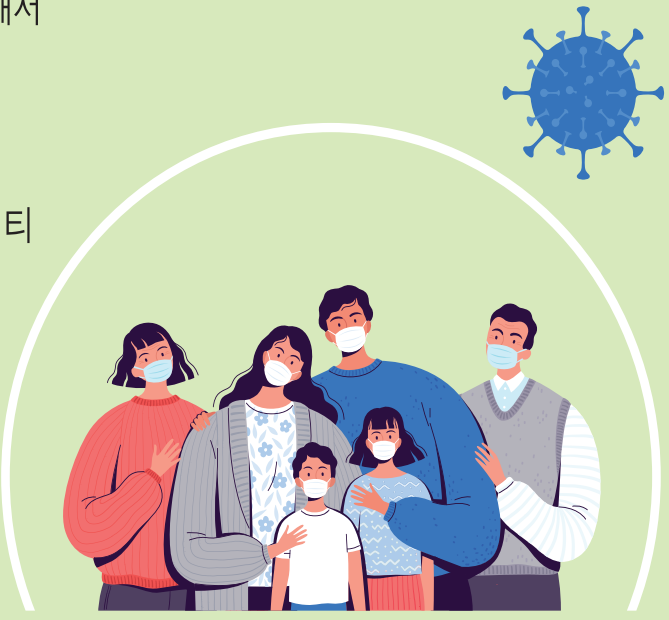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백만 불 그랜트 수상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릴리 재단(Lilly Foundation)이 후원하는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2차 프로젝트에 프로포절을 제출, 채택되어 100만 불 그랜트를 수상했습니다.

100만불
그랜트 수상

프로포절 제목 Culturally Competent Pastoral Leader Project

수상 금액 \$999,198

프로젝트 실행 기간 2022 - 2026년

향후 5년 중점 프로젝트

- 01 한어권 사역자와 영어권 사역자의 목회 파트너십과 리더십 함양 교육
- 02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 03 다문화 현상이 요구하는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
- 04 문화적 소통 능력이 탁월한 차세대 목회 리더 양성 교육
- 05 선교적 리더십으로 문화 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신학 교육

202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위 과정

학부(B.A.) 과정

- 신학(Theology)
- 사회복지학(Social Work)
- 국제경영학(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가정상담학(Family Counseling)

석사(M.A.) 과정

- 목회학(Divinity)
- 목회학 원목 집중 과정(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
-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박사(Doctorate) 과정

- 선교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개강일 | 1월 24일

수업 방식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수업 방식

- 온캠퍼스 수업(On-campus learning)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CANVAS based online learning)
(CANVAS: 북미 유수대학교가 사용하는 Online Learning Management Platform)
- 실시간 화상수업(Synchronous online learning)
- 온,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수업(Blended learning)

장학 및 학자금 지원

- 20여 종류의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Pell Grant)
- 주정부 학비지원(Cal Grant)
- 현역 및 퇴역군인 학비지원

자격 및 인준



가주교육국(BPPE)



기독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유학생 I-20 발행

입학 상담 Tel. 562.926.1023

- 학부 과정 이명철 학장 (ext. 308 | mcleee@ptsa.edu)
- 목회학 석사 과정 김루빈 처장 (ext. 303 | rbkim@ptsa.edu)
- 상담학 석사 과정 김경준 디렉터 (ext. 310 | wisp3457@ptsa.edu)
- 선교학 석/박사 과정 신춘식 디렉터 (ext. 309 | doctor@ptsa.edu)

입학 지원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office@ptsa.edu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562-926-1023 | Fax 562-926-1025 | www.ptsa.edu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속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면2세대를 섬기며, 이면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9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의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국 개혁신교단, 보수 연합측 '탈퇴' '동성애 입장 차이 탓'

종교민주주의연구소 "RCA 떠나 ARC 간 교회 5% 육박"



미국개혁신교회(RCA)은 2021년 10월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와 성경 해석과 관련해 교단을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Maria Orr/ 크리스천포스트

새해 들어 미국 개혁신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이하 RCA)에서 보수적인 신학 입장을 가진 교회 43곳이 탈퇴하고 새 교파에 합류했다.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개혁신교회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이하 ARC)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교파는 개혁신교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창설됐다.

신학적 보수 싱크탱크인 종교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의 제프 윌튼은 1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RCA를 떠나 ARC를 향하는 교회 수가 개혁신교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미국 성공회, 장로교, 복음주의 루터교에서 시작된 재편성이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에까지 도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 분열의 특징이었던 소송과 악감정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혁신교회(RCA) 총회 지도부는 탈퇴 측이 교회 자산과 건물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앞서 개혁신교회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지난해 7월 '비전 2020'으로 알려진 대책 위원회는 성윤리에 대한 논쟁이 더 광범위한 교단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교단 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비전 2020 보고서는 "특히 지난 70년 동안 RCA가 난관에 봉착했던 수많은

은 시점이 있었다. 의견 불일치와 긴장의 지점에는 에큐메니컬 파트너십, 사회 정의/정치적 참여, 타 교단과의 합병, 공산주의, 내부 구조조정과 같은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일을 지금도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 자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교단 분리를 암시했다.

개혁신교회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교단 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보수 교회들의 ARC 합류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덴 애커먼 ARC 조직 지도부 이사는 지난해 6월 블로그를 통해 새 교단의 결성을 이끈 '3가지 주요 신념'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애커먼은 "개혁신학 안에서 이해되는 성경, 즉 하나님, 죄, 세상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세심한 믿음을 제공한다"라며 "지역 교회에 맡겨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1500년대부터 물려받은 것보다, 더 기민한 형태의 사역과 관리에 의해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직의 본질은 교인의 사명과 비전을 높이 평가하여, 교인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역자와 같은 교인들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美 바이든 행정부, 종교적 이유로 백신 거부한 직원 명단 수집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추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 House/Lawrence Jackson

이에 따르면, 최근 컬럼비아 특별구 PSA(Pretiral Services Agency)는 '고용 직원 종교적 면제 요청 정보 시스템'을 생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감독하고 석방 권고를 공식화할 책임이 있다.

이 시스템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이와 유사한 건강 및 안전사고 상황에서 연방이 의무화한 예방 접종 요구 사항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한 개인의 종교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록 시스템은 기관이 직원들의 종교적 면제 요청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보급하고 폐기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공개 의견은 2월 10일까지 받는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설립한 온라인 뉴스매체 데일리 시그널은 최근 새로운 기록 시스템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헤리티지 에드윈 미즈 3세 법률 및 사법연구센터 법률 펠로우인 사라 파살 페리와 지안칼로 카나파로는 "새로운 시스템은 코로나19 백신을 종교적 근거로 반대하는 미국인 목록을 수집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데 있어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기자

미 백인 복음주의자 56% “결혼과 출산 우선하는 사회 지지”



©Natalya Zaritskaya/ Unsplash.com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우선시하면 사회가 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3명 중 1명(34%)만이 “결혼과 출산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반면, 64%는 “결혼과 아이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을 때 사회가 나아질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는 반대로,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 56%는 “결혼과 출산을 우선하는 사회가 더 낫다”라고 말한 반면 41%는 “다른 우선순위가 더 낫다”고 말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 유일한 종교 집단이다. 응답자 중 미국 가톨릭 신자(35%), 흑인 개신교(36%), 백인 비복음주의 개신교인(35%)은 모두 40% 이하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비종교인’은 16%만이 “결혼과 육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더 낫다”고 말했으며 82%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때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결혼과 출산 관련 분야에서 정당별 시각차도 두드러졌다. “사회가 결혼

과 육아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응답은 공화당원(50%)이 민주당원(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퓨리서치 선임연구원인 스테파니 크레이머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패턴은 종교적 준수 정도에도 적용된다”면서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정기 예배 참석자들은, 종교가 덜 중요하다거나 예배를 덜 참석하는 사람보다 결혼과 출산을 우선하는 사회가 더 낫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이달 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들의 관행을 지적하며 논란을 촉발한 지 며칠 뒤에 발표됐다.

교황은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일반 알현 중에 예수의 지상 아버지인 요셉에 관해 설명하며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한 명만 가지면서도, 개나 고양이는 여러 마리를 키운다. 개와 고양이가 아이들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청중들에게 “이러한 모성과 부성에 대한 거부는 우리를 약화시킨다. 우리의 인간성을 앗아간다”라며 “이런 식으로 문명은 모성과 부성을 상실함으로써 늙고 인간성을 잃어간다. 또 우리 조국은 자녀가 없어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美 뉴저지주, ‘출산 때까지’ 낙태 허용... 친생명단체들 반발

미국 뉴저지주가 출산하는 순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자, 친생명운동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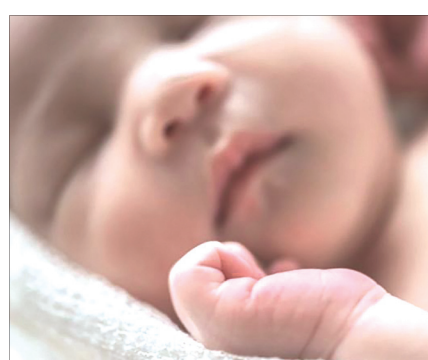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는 13일 쉴라 올리버 부지사, 가족계획연맹 알렉시스 맥길 존슨 회장과 ‘생식 선택의 자유법’(Freedom of Reproductive Choice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개인에게 피임권, 임신중절권, 임신을 지속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식 자율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주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전문가가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차 생식 의료 서비스, 임신 중절 서비스, 장기간 피임약 및 호르몬 공급을 포함한 생식 관리를 위한 포괄적 보증을 보장한다. 이는 뉴저지 시민들이 생식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종교를 가진 고용주가 이러한 보험 혜택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인 입법은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을 뒤집거나 축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맥길 존슨 회장은 “이는 생식 건강을 위한 뉴저지주의 역사적인 날이자 생식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 주지사, 입법 지



©Unsplash/HuChen

지자들, 뉴저지 가족계획연맹 행동 기금 등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 머피 주지사, 맥길 존슨 회장 등 친낙태 지지자들은 이 법 통과에 박수를 보냈지만, 로마가톨릭 5개 교구와 비잔틴가톨릭 교구, 시리아가톨릭 교구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은 모든 생명은 수정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톨릭의 기본 가르침에서 벗어난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새로운 법의 근간이 되는 법적·윤리적 계산법이 태아의 인간적·도덕적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임기가 촉박한 시기에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의원들은 그 법안의 비인간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시민들이 완전히 이해하길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 소재 친생명단체인 뉴저지 라이트는 “이 법안의 광범위한 문구와 그 어디에서도 임신 제한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법안은 임신 중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OC제물 주일 9시 예배 오전 8:00
주일 10시 예배 오전 9:00
주일 11시 예배 오전 10:00
주일 12시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19514 Resali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례부 오전 9:30,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예배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토)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토)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t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이란, 기독교인 구금·고문 등 종교 자유 침해 만연

세계기독연대·오픈도어 등 공동 성명

이란에 종교 자유 침해가 만연해, 기독교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기독연대(CSW)와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 아티클18(Article18), 미들이스트컨선(MiddleEast Concern)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이란에서 (종교 자유) 위반 행위가 지속돼, 한 해 동안 최소 59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작년 기독교인 30명이 여러 형태로 수감됐고, 34명이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최소 209명이 사법 판결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 35명은 심각한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검거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이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개종자 9명에 대한 실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정에서 기독교와 ‘시오니즘 종파’를 전도하는 것은 원판결에서 내세운 ‘대내외 안보를 위협하는 모임과 공모’ 사례가 아니”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르면, 가정교회 활동과 시오니즘 기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며 “이 판결이 혁명법원에 의해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사건이 검토되는 동안 석방됐다”고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은, 이란 서부에 위치한 도시 데즈플 관리들이 기독교인 개종자도 8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샤리아법으로는 배교가 범죄지만, 이란법에 따르면 그렇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정교회에 연루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란 사법제도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치되지 않은) 판결은 이란 사법제도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판결이 사법부의 핵심적인 제도적 개선보다 개별 판사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에 “모든 시민들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FoRB)를 지지해 달라”며 “신앙이나 종교 활동과 관련된 ‘거짓 혐의’로 구금된 기독교인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한 가정교회 조직과 교인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국제사회가 이란과 관련된 정치와 무역 문제를 논의할 때 이란 정부에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이 보고서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계속되는 위반 행위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이란 정부가 권고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란 헌법도 종교행위를 인정했으니, 이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정부가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인 국제법 18조에 명시된 대로, 바하이, 수피 이슬람, 휴머니스트, 수니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우크라이나 침신대 총장 “러시아 침공시 주민에 집·교회 개방할 것”



우크라이나 리비우 시내 전경 ©Tymoshenko Pavel 유튜브 영상 캡처

우크라이나 침례교 신학교(UBTS) 총장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지역 신자들을 보호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서부 도시인 리비우에 위치한 이 대학 총장인 야르솔라프 슬라빅 피즈(Yarsolav “Slavik” Pyzh)는 미국 남침례회 교단지인 ‘백티스트프레스’와 최근 인터뷰를 가졌다.

피즈 총장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동부와 북부, 남부 일부 지역을 침공할 것이다. 교회들도 이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서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형제자매들에게 일이 생기면 우리의 집과 교회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16년 반테러금지법인 일명 ‘야로바야법(Yarovayq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교회 건물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기독교인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모든 교회나 종파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즈는 침공이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두 국가로 분할되어

서부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결과로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일 침례교회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하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핍박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않았으며, 새로 조직하고 정비하여 늘 하던 대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례교 신학교의 재학생 1,300명 중 400명이 동부 지역 출신이다. 대학 측은 이 지역 내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왔다

고. 그는 “여기 서부에서 더 많은 학생과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이곳에 올 것이라고 믿지 않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교회가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과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고 무력 충돌을 대비해 인도적 구호를 제공할 방법을 찾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전쟁 발생 시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미국 적십자사 등 구호 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피즈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유럽 복음주의 교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 “유럽의 복음주의 교회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특히 미국의 침례교는 훨씬 더 강하다”고 전했다.

피즈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 230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Ukrainian Baptist Union)은 10만 명의 교인과 2000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유진 기자



LA office/Showroom

리모|델|링

전문

오|픈|기|념| 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전적상담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신앙정절과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18-29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중략)...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서 동북쪽으로 180리 정도 가면 두아디라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도 옛날처럼 구리를 많이 캐내어 여러 가지 생활 기구를 만들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무역으로 산업과 상업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14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친정 고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인 항구도시가 빌립보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가서 물들인 옷감을 구해 행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공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세계 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두아디라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만든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환란과 행패,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엄청난 연단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33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신 일이 없고 어떤 행패와 고통을 당하셔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사업을 그 서두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을,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내세소망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육신이 세상사는 날 돈 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첫째 목적이었다는 것과 이들의 사랑은 진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일로 구리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과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진리 정통한 교리적 신앙이 바로서지 못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우선이었고 섬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통한 신앙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인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은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의 지도급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도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입각하여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정절과 쫓대를 지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9:6-37 사이에 이세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바알(풍요의 신)과 아세라(다산의 신)라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궁안에 신상을 놓고는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숫자는 늘어갔고 하나님의 별로 긴 가뭄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기도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이 했던 역할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이단을 끌고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 이단을 추종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이 여자와 육체적으로 음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환란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의 씨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뿐 아니라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의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와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를 감싸주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회개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대하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서 받은 은혜가 감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 분위기를 힘쓰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에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다보니 그들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식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아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리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 믿어지는 믿음이 확실한 바탕을 이루었을 때 우리라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교회의 올바른 성장 모습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 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주기철 목사의 순교

다음 평양 정기노회가 창동 교회에서 모였을 때 (후) 평양 신학교에서 산정현교회 사택을 신학교에서 쓰게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자 노회는 이를 결정하였다. 평양노회장 등 목사 3인은 산정현교회 유계준(劉啓俊) 장로를 찾아와 사택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평양경찰서에서 노회의 결의에 따라 주 목사 가족들과 세간을 끌어냈고 사택에는 (후) 평양신학교 교수 고려위(高麗偉)목사 가족이 입주하였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을 하고 가족들이 질병에 자주 시달림을 받자 결국 스스로 사택에서 나갔고, 곧이어 사택은 폐쇄되었다.

옥중에서 온갖 고문을 받으며 5년 수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두 눈, 폐, 심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주 목사는 1944년 4월 병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어느 날 오정모 사모가 면회 갔을 때 감옥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간청하여 면회를 허락 받았다. 주 목사는 간수에게 부축을 받아 나와서 부인과 최후의 면회를 하였다. 주 목사는 면회 중 힘이 진하여 쓰러졌는데, 그 때 남김 마지막 유언 네 마디는 다음과 같다. 1.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셔 주오. 2. 따스한 송늬이 한 그릇 먹고 싶소. 3.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

님의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 하겠소. 교회에 이 말을 전해 주시오, 4. 나를 [고향] 웅천에 데려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 주오.

이 말을 마치고 그 자리에 쓰러지자 간수들이 업고 감방으로 갔다. 그 날 저녁, 그러니까 1944년 4월 21일 밤 9시 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영혼의 하나님이며, 나를 불드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소리에 방안이 진동하여 곁에 자던 죄수들이 모두 놀라 깨어났다고 한다. 그는 한창 일할 나이인 47세에 신사참배의 강요도 없고 친일하는 배도(背道)의 무리도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주목사는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쉬”을 얻게 되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위상 앞에 고개 숙인 한국 교회를 짓눌렀다.

그는 위상 앞에 머리를 곧게 쳐들고 우뚝 선 우리 교회의 다니엘이요, 신앙의 사표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횃불로서 지금도 계속 타 오르고 있다. 해방을 불과 1년 서너 달 남겨 두고 떠난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신앙의 분이 되는,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선배이다. 일제의 강요에 따라 신사에 참배하며 비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역사의 무서운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심판을 받아 모두 죽었으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오늘날 역사 속에 살아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최권능(崔權能) 목사도 잘 알려진 최봉석(崔鳳奭) 목사도 주 목사와 함께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겪으면서도 교회와 민족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 힘이 다 소진된 채로 석방되어 평양 기흥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1944년 4월 15일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는……” 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였으니 주 목사가 순교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감옥에서 50여 명의 신앙의 지사들이 순교의 관을 썼는데, 그 중에

는 감리교회의 이영한(李榮漢) 목사가 해주 감옥에서 순교하였고, 성결교회의 박봉진(朴鳳鎭) 목사가 철원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곧바로 순교하였으며, 전택규(田澤圭) 목사가 함흥 감옥에서 순교하였고, 안식교회의 최태현 목사도 역시 순교의 관을 썼다. 이리하여 저들은 한국 교회가 위상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자신들의 순교의 피로 씻어냈다. 또한 이 위대한 신앙의 지사들은 이세벨의 무리들 틈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 사적을 이야기하면서 오정모 사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정모(吳貞模 1903-1947)는 평남 강서(江西)에서 출생하여 평양 송의여중을 졸업하고 마산의신(義信)여학교 교사로 있었다. 그는 본래 병약하여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교육계에 헌신하려 했으나 주위의 권고로 주 목사와 결혼하게 되었다. 오정모는 강직한 성품으로 주 목사가 네 차례 구속이 되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단 한 번밖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주 목사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줄곧 추운 예배당에서 기도로 밤을 새웠고, 도와주는 이도 없이 손수 어린 천천 자식들을 돌보고, 늙은 신어머니를 봉양했다. 낮에

는 백인숙(白仁淑) 전도사와 더불어 주 목사 대신 교인들을 심방하며 격려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김일성 정부는 주 목사가 항일투사라며 상장과 금일봉을 보내왔으나, “주 목사는 항일투사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순교자이므로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또한 평양노회가 오정모 사모에게 사과하고 주 목사 순교기념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다. 산정현교회가 예배당 뜰에 주 목사 순교기념비를 세우려고 계획했을 때도, 돌아가신 분의 유지에 어그러질 뿐 아니라 위상이 될 염려가 있다고 사절하였다. 목사님의 유족을 위해 토지를 사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는 주 목사님의 청빈생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역시 거절하였다.

오정모 사모는 1947년 1월 27일 유암으로 세상을 떠나 평양 돌박산 주목사의 묘지 곁에 함께 묻혔다. 오정모의 일생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청빈의 삶을 산, 그 이름 ‘정모(貞模)’의 의미와 같이 ‘정절의 모범’이었다. 김린서 목사가 묘사한 것같이 “대한 예수교회 백세지하(百世之下)에 여성도(女聖徒)의 모범”으로 살다 간, 그리고 모든 사모들의 산 표본이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하루는 참다못해 “이 풍과리 같은 간나 새끼야! 정 그렇게 주절대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은 귀신을 내게서 몰아내고 나를 이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라. 이 생회를 쳐서 먹어도 시원치 않을 중간나 새끼야!” 하며 욕을 퍼부어 대니 이 녀석의 반응이 또 의외였다.

“하나님한테 빌면 정말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거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마음 같아선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형 언도가 취소되면 내성을 바꾸겠다. 이 중간나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사형이 아니라 화형을 당해도 시원치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빌어라. 부지런히 빌어라.”

그러자 이 녀석이 놀랍게도 이후 그렇게 될 새 없이 떠들던 입술을 멈추고 머리를 처박고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서 소를 잡아먹은 귀신을 몰아내시고 나를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아하! 저 자식이 계호원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말을 그치지 않고 나를 괴롭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저 자식을 만나려고 나를 사용하셨

구나. 그것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저 자식을 저주했으니... 쫓쫓!’

그러다 문득 아 참, 나도 죽을 때는 죽더라도 작업반원들과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싶어 녀석과 함께 머리를 처박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겨진 작업반원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해놓고도, 고개를 숙이고 눈만 감으면 기도는 되지 않고 불만만 터져 나왔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지하숙소복원과 복령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라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ed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T.V.에 나와 한마디 하면 하루 밤새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3:1-2)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 참되기 위한 전

제 조건이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 가운데 첫 번째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4세기 경 초기 기독교, 사막의 경건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7가지 대죄 -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교만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pride)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으로 간음과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은 이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탄이 사탄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교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피 속에 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더러운 입 냄새와 같다’고 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고통스럽게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세상 모든 만사를 자기중심으로 푸는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또 늘 보이는 것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고 신분이 상승한다고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과거보다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력과 애씀은 있는데,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 심어준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하시므로 마귀를 이기셨듯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and 신앙생활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마음의 교만을 이기고 예수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죄를 회개하므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해를 여는 의미

저희 베델교회는 항상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엘새)로 한 해를 엽니다. 우리 교회만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베델교회의 엘새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는 온 교회가 기도로 새해를 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베델의 모든 모임 중에 가장 많은 성도가 힘을 다해서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비전으로 참여하며 그 열기를 더합니다. 온 가족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하는 이민교회의 숙제를 모범적으로 풀어내는 베델교회는, 올해 처음 “큐티인” 교재로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새벽기도

를 시작했습니다. 큐티 교재 영문본의 미흡함을 최대한 보완하여 자녀를 위한 큐티인 영문본이 새롭게 시작된 것은 이민 교회 역사의 큰 장을 열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본질을 잃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는 초치일관의 엘새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9년째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을 외치고, VIP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현재 베델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신년 꼭두새벽부터 함께 모여 외치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령을 향한 외침입니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셋째, 선한 사업의 신호탄으로 새해를 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새해 첫 헌금을 선교지를 위해 향기 나는 예물로 드리며 출발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올해도 엘새 감사헌금 2만여 불을 선교 현장의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보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 터키에 유학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생활 보조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이제 막 문을 연 ‘방과 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또한 캄보디아 뉴 호프 학교 학생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번에도 팬데믹 가운데 열린 두 번째 엘새였지만, 작년은 현상이 아닌 온라인으로 최대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었고, 올해는 가장 많은 성도의 뜨거운 기도 열기가 있었습니다.

My One Prayer에 가장 많은 기도 요청 제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올해 모토처럼 ‘더 깊이’ 엮드려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기로 뜨거웠던 시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기도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엮드려 기도하는 무릎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성패는 엘새에 달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온 세대가 큐티와 더 깊은 기도로 믿음의 심도를 더하고, 전도와 선교로 가장 중요한 본질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액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및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이민교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www.tgsc.org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th St. Torrance, CA90505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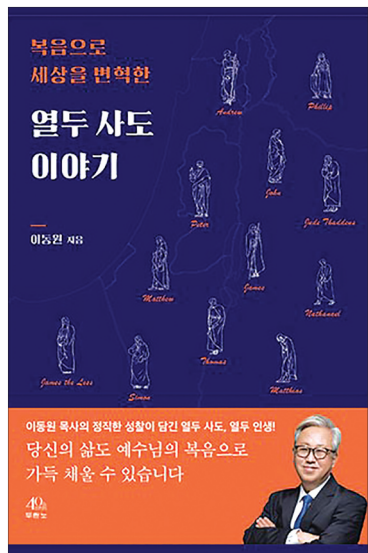
- 교회(소개)**
 - 1) 이름: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Antioch Church of Las Vegas)
 - 2)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702-749-9929)
 - 3) 현 소속교단: 해외 한인장로회 (KPCA)
 - 4) 교회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 지원자격**
 - 1) 미국 KPCA(해외한인장로교회)교단에 가입된 분이거나 가입할 수 있는 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 2) 이민 목회 경력이 5년 이상 되시는 분(부목사 포함)
 - 3)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포함, 최근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첨부)
 -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YouTube 링크)
 - 4) 최종 사역교회 후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 5) 목사 2인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요망 또는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제출)
 - 6) 목회 비전과 계획
- 제출방법**
 - 1) 이메일: myungcho09@gmail.com
 - 2) 제출기한: 2022년 2월 15일
 - 3) 설교를 제외한 모든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6)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 청빙 결정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7) 최종 후보자는 원본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위에있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이동원 목사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열두 사도 이야기>

'열정적 사도' 야고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들은 출신도, 학벌도, 성격도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맞춰 제각각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의 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열두 사도 이야기>는 열두 제자들의 삶과 신앙,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와 안드레 형제와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이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야고보의 집안은 부유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고보의 성격을 보면 그와 그의 동생 요한은 늘 같이 행동했다. 이는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성향을 지닌 제자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형제들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걱정적이며 열정이 많았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천동벼락 같았을 것이다"라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패턴은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성장 과정이 기질에 따라 다른 것처럼,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걱정적인 성격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두 가지의 세례를 말씀하신다.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이다. 이런 성격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이나 똑같은 형벌,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감정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이 두 제자, 특별히 야고보를 위해 예비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이자, 처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적극적인 제자였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곤 했다. 예수님에게는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제자 중의 제자, 소위 중심 서클인 세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 제자와 함께하신 현장들도 있다. 변화 산상에도 이 세 제자가 함께 따라갔고,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 책은 △평범하나 비범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열두 사도 서설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 △한 영혼 비전의 전도사: 안드레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 △사랑의 사도: 요한 △신중환 완벽주의자: 빌립 △가룻이 아닌 사도: 다대오 유다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니엘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 △작은, 그러나 꼭 필요했던 사도: 작은 야고보 △의심 많은 사도: 도마 △구원받지 못한 사도: 가룻 유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도: 맛디아의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가 눈길을 이끈다.

이어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그는 '열정적인 사도'이다.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베드로

를 주 앞에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열두 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길 원한다"라며 "헤롯왕은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는 왕이었고,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로 하고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았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그는 목이 베여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내적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 세 사람은 삼총사처럼 핵심적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으며,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아갔다"라고 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목

숨을 주 앞에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열두 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길 원한다"라며 "헤롯왕은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는 왕이었고,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로 하고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았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그는 목이 베여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내적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했다.

이동원
두란노 | 260쪽

당신의 삶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을 향한 같은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간] 나는 믿는다

도서출판 엘맨이 제이크 프로방스 & 키이스 프로방스 부자의 신간 <나는 할 수 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시시각각 변하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풀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명상가나 수행자들은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다고 전제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그들에 원하시는 성취, 기쁨, 삶의 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지시, 은혜, 권한, 일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왜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며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저자 제이크 프로방스는 열

정적인 독서가이자 야심찬 젊은 작가로 다섯 권의 책을 집필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톨사에 있는 도마다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며 젊은이 사역에 열정을 가지며 목회 조인 사역에 소명을 두고 있다.

그의 아버지 키이스 프로방스 대표(성령과 말씀 출판사)는 30년 이상 기독교 출판에 참여했으며 성경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서적 출판 및 전 세계 배포를 전담하는 회사인 성령과 말씀 출판사의 설립자이다 대표이다. 그는 그의 아들 제이크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마음을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이크 프로방스 & 키이스 프로방스 지음
방인환 옮김

I CAN
DO WHAT THE BIBLE SAYS I CAN DO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나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승리의 삶을 위한 성경적인 기도>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 2022년 3월 27일까지(청빙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www.sunhanchurch.com

유치부 사역자 청빙
Kindergarten Pastor, Part-Time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Chino Hills. GSPC is a member of the ECO denomination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e are in the process of hiring a part-time pastor to lead our Kindergarten department. We are look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teach, and guide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a part-time position for Friday evenings and Sunday Worship and Bible Study. There are currently 8 staff members serving in the ministry.
Homepage: www.sunhanchurch.com

Qualification:

1. Currently enrolled in or graduated from a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with the parents.
3.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4.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Application:

* If you feel GSPC would be a good fit for you, please email your resume with a picture (with your family if applicable), and a letter of introduction and spiritual journey.
*Please include 2 letters of recommendation. (Preferably from direct supervising pastors and/or church leaders who have known you well in the ministry context). The format should be a simple letter that describes your ministry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people.

*Please email your documents to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하우스 오브 구찌> (2)

인간 허영의 실상 집약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꾸미려는 열망에의, 성적 원리와 세속적 현실 아름다움에 매혹, 하나님 심어주신 영혼의 기능 오늘날 실재적 아름다움 대신 가상 외모에 몰입 인간 영혼 직결된 실재적 아름다움 열망 추구를

서구 철학의 출발점이라 하면 통상 주전 6세기경의 탈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 학파를 지목한다.

이 시기로부터 주전 4세기경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고전적 서구 형이상학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 형이상학은 우주 만물의 창조, 운행, 그리고 섭리를 다스리는 궁극의 존재인 신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에 주력했다.

고전적 형이상학은 신과 세계, 관념과 물질, 예지계와 현상계의 뚜렷한 구분을 중시했다. 이런 경향은 플라톤주의에서 두드러졌다. 플라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신-인관계의 원동력이자 영혼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았다.

그는 완전한 진리(眞), 완전한 선(善), 완전한 아름다움(美)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두고, 우리 영혼이 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신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심성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영혼이 신과 그 완전성을 사랑하는 것을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신 가운데 사랑을 주관하는 신인 에로스(Eros)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사랑과 갈망이 오로지 신성한 것을 향할 때에만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 열망이 물질세계의 각양 존재자들, 이 땅의 것들을 향할 때 영혼의 사랑이 어긋난 방향으로 발현된다고 경고했다.

순수하게 관념적이고, 예지적이고, 신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런 사랑의 힘에 대한 플라톤의 가르침은 훗날 주후 4-5세기경 중세 기독교 신학의 설계자 어거스틴에게로 이어진다. 그는 플라톤주의가 그 자체로서는 복음과 같은 진리가 될 수 없지만, 여러모로 성경을 철학적으로 변증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인간 영혼에 기댄 사랑의 힘을 기독교적으로 해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는 <고백록>을 비롯한 그의 저서 전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누차 강조한다. 그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성(sensibility)을 경유하지 않는 순전한 영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심성을 우리 영혼으로부터 길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을 바라는 것, 소망이나 갈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허락하신 기능이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주장은 그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청종하고 실천하기 위한 유익한 기능이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이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죄를 짓는 쪽으로 의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원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능이 어긋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훗날 루터는 이를 '노예의지(servus arbitrio)'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퇴락해 버린 인간의 자유의지와 마찬가지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힘써 사랑하는 영혼의 기능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향하게 된 사실에 대해 애통해한다.

단 그는 인류가 영원히 이렇게 추락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데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쳤다.



<하우스 오브 구찌>의 주연 레이디 가가. 파격적인 미감을 과시하는 패션 센스로 유명하다.

◆아름다움을 구별하기: 영혼의 실재적 아름다움과 외모의 현상적 아름다움

화려한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중요한 영적 속성으로 지목한다.

각종 천사들의 외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두른 영광됨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온전한 창조섭리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의 수준이 사뭇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실재적인' 아름다움은 육체와 세계의 '현상적인' 아름다움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광활하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속성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유비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판단력비판'에서 아름다움의 감정과 숭고함의 감정을 지목하고 그 특성을 날달이 해명한 바 있다. 특히 특정한 대상적 형상과는 무관한 숭고함의 감정이 도덕법칙의 원

천으로서 신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칸트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성 혹은 초월성 자체를 감지하는 데로 이어지는 미적 감정과 무관하게 순전히 유한하고 감성적인 것에만 관계된 미적 감정 역시 존재하는데,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영혼에 귀속된 실재적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할 뿐더러 이 실재적 아름다움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을 발휘한다.

성경은 이처럼 영혼의 아름다움과 무관한 감성적, 물질적 아름다움을 '외모'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외모는 좁은 의미로는 매력적인 용모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그 매력을 유지하고 뒷받침해주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표상들, 즉 부, 명예, 권력의 과시행태까지 포괄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실재적인 아름다움을 도외시한 채 가상적인 외모에 몰입하는 행태의 최일선에 명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자리잡고 있다.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는 바로 이런 허영의 실상을 집약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구찌 브랜드의 오너 마우리치오 구찌와 결혼에 성공했던 파트리치아의 범죄 행각은 외모를 꾸미는 데 집착하는 인간의 퇴락한 영적,

정신적 실상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결국 실재적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자연 만물의 오묘함과 경이로움을 사랑하거나, 인간 실존에 깃든 도덕과 선행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근간이 되시는 실재적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사랑할 가능성에 열려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그것도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값비싼' 인공물에 몰입하고 그로부터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들은 인간 영혼에 직결된 실재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깨우치지 못한 채 퇴락한 욕망속에서만 허덕이게 될 뿐이다.

성경이 외모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값비싼 의복과 치장을 멀리하라고 권고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현상적이고, 감성적이며, 잠정적이고, 인공적이며, 작위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된 상태가 하나님과 영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아차리고 갈망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